

국어와 생활 시험범위 정리

경기과학고등학교 14041 박승원

2017년 1월 24일

이 문서의 차례 및 표 목록은 맨 뒤에 있음. #시험기간이라서



그림 1: 위키백과에 소개된 우리말의 두 가지 명칭.

이 문서는 경기과학고등학교에 재직 중이신 이동학 선생님의 ‘국어와 생활’ 수업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Creative Commons CC BY-NC-SA

제 1 장

언어

“언어와 사고는 상호 의존적이다.”

“언어는 한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고, 동시에 한 사회의 문화를 형성한다.”

제 1 절 언어의 특성

- 기호성 :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정한 형식으로 나타내는 기호
- 자의성 : 내용¹과 형식² 사이의 필연성 없음
- 사회성 : 내용과 형식 사이의 관계는 쓰는 사람들간의 무언의 약속
- 역사성 :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함
- 규칙성 : 이루는 각 요소들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운용³
- 창조성 : 정해진 규칙 안에서 새로운 단어, 문장 무한히 만들 수 있음.
- 추상성 : 추상화⁴ 과정을 거친 개념을 단위로 운용
- 분절성 :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나타냄

¹ 의미

² 기호

³ 무엇을 움직이게 하거나 부리어 씀.

⁴ 기호(형식)은 유한, 내용(의미)은 무한하기 때문에 기호가 내용을 완벽히 표현 불가

제 2 장

음운

음운은,

1.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 물 ↔ 불 ↔ 풀
2. 소리의
3. 가장 작은 단위

이다.¹

제 1 절 음운의 종류 및 특징

음운의 종류에는 ‘말’ 을 ‘ㅁ’, ‘ㅏ’, ‘ㄹ’ 와 같이 나뉘는 분절음운이 있고 그렇지 않은 비분절음운이 있다.

1.1 분절음운

1.1.1 모음

모음 :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 홀로 발음할 수 있음.

모음에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단모음에 대해서만 논하고자 한다. 단모음의 발음에 따른 분류는 표 2.1과 같다.

1.1.2 자음

자음 : 발음기관의 어디에선가 장애를 받아 만들어지는 소리. 홀로 발음할 수 없음.

자음의 발음에 따른 분류는 표 2.2과 같다. 여기에서 ‘파찰’ 이란 파열과 마찰을 합한 말이다.

¹ 음성 : 사람이 의사소통을 위하여 발음기관을 통해서 내는 소리
음절 : 모음과 자음이 결합되어 이루는 발음의 가장 작은 단위

혀의 앞뒤 위치	전설 모음		후설 모음	
입술모양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혀의 높이				
고		ㄱ	—	ㅜ
중	ㅔ	ㅓ	ㅓ	ㅗ
저	ㅐ		ㅏ	

표 2.1: 단모음의 발음에 따른 분류

조음방법		조음위치	두 입술	윗잇몸, 혀끝	센입천장, 혀바닥	여린입천장, 혀뒤	목청 사이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표 2.2: 자음의 발음에 따른 분류

잎	끝	부엌	꽃
[입]	[끈]	[부억]	[꼰]

표 2.3: 끝소리 규칙의 예시

1.2 비분절음운

비분절음운에는 장단, 억양 등이 있다. 끝.

1.3 국어의 음운론적 특징

- 예사소리 / 된소리 / 거센소리의 대립
- 첫소리에 둘 이상의 ‘ㄹ’, ‘ㄴ’ 소리가 오지 않음
- 모음조화 현상

제 2 절 음운의 변동

국어의 표기는 어법에 맞도록 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실제 발음과는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꽃’은 상황에 따라 [꼬��], [꼰], [꼰]으로 다양하게 발음된다.

이와 같이 어떤 음운이 그 높이는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 변동은 크게 교체, 탈락, 침가, 축약과 같이 4가지로 나뉜다. 다음 두 문장에서 그를 살펴보자.

철수는 국물²을 좋아³한다.
담요⁴를 놓고⁵ 나오거라.

2.1 교체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2.1.1 끝소리 규칙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⁶ 과 같이 7개뿐이기 때문에 음절이 교체된다. 예시는 표 2.3와 같다.

²교체

³탈락

⁴침가

⁵축약

⁶가느다란물방울

굳이	밭+이
[구지]	[바치]

표 2.4: 구개음화의 예시

		→			→	
비음화	ㅂ		ㅁ	밥물		밤물
	ㄷ		ㄴ	견는다		건는다
	ㄱ		ㅇ	국물		궁물
유음화	ㄴ		ㄹ	신라		실라

표 2.5: 자음동화의 예시

2.1.2 된소리되기

다음 4가지의 경우 뒤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

1. 파열음⁷
2. 한자어
3. 용언의 활용
4. 관형사형 어미 ‘ㄹ’

2.1.3 구개음화

단모음 ‘ㅣ’이나 반모음 ‘j’ 앞에서 ‘ㄷ, ㅌ’이 각각 [ㅈ], [ㅊ]로 바뀌는 현상. 예시는 표 2.4와 같다.

2.1.4 자음동화

비/유음 앞에서 비/유음이 아닌 것이 비/유음이 되는 바뀌는 비/유음화. 예시는 표 2.5와 같다.

2.1.5 ‘ㅣ’ 모음 역행동화

‘ㅣ’ 앞에서 ‘ㅏ’, ‘ㅓ’ 등의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으로 바뀌는 현상.⁸ 예시는 표 2.6와 같다.

2.1.6 교체 문제들

다음 단어들은 음운의 교체에 해당한다. 분류하시오.

부엌, 국밥, 국민, 신라, 굳이, 아기

⁷ ㄱ, ㄷ, ㅂ 외 6개

⁸ 풋내기, 냄비, 멋쟁이는 원래는 표준어가 아닌 표준 발음에 속했으나 현재는 표준어로 인정됨.

어미	고기	멋장이	풋나기	남비
[에미]	[괴기]	멋쟁이	풋내기	냄비

표 2.6: ‘ㅣ’ 모음 역행동화의 예시

쓰-+-어라	자-+-아라	서-+-어라	끄-+-어라
써라	자라	서라	꺼라

표 2.7: 모음의 탈락의 예시

2.2 탈락

있었던 음운이 사라지는 현상.

2.2.1 자음의 탈락

- 음절 끝에는 하나의 자음밖에 오지 못함 : 뜬[목], 닦[닭]
- 모음 사이에 최대 두개의 자음 : 짧고[짧꼬], 굽고[굴:꼬], 좋은[조은], 날는[나는]

2.2.2 모음의 탈락

용언이 활용될 때 어간이나 어미의 모음에서 나타난다. 예시는 표 2.7와 같다.

2.3 첨가

없었던 음운이 새로 보태지는 현상.

2.3.1 ㄴ 첨가

합성어나 파생어 등에서 뒷말이 모음 ‘ㅣ’이나 반모음 ‘j’로 시작될 때 나타남. 이는 사잇소리 현상⁹의 하나이다. 예시는 표 2.8와 같다.

2.4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 새로운 음운이 되는 현상.

⁹두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명사)가 될 때, 그 사이에 소리가 덧생기는 현상(ㄴ이 첨가되거나 된소리가 남)

담요	솜+이불	한+여름	맨+입
[담뇨]	[솜니불]	[한녀름]	[맨닙]

표 2.8: ‘ㄴ’ 첨가의 예시

입학	좋다	옳지	많다
[이팍]	[조타]	[올치]	[만타]

표 2.9: 거센소리되기의 예시

2.4.1 거센소리되기

‘ㅎ’ + 앞뒤의 예사소리 → 거센소리

예시는 표 2.9와 같다.

제 3 장

단어

제 1 절 품사

품사의 분류 기준은 **형태**, **기능**, **의미**이다.

1.1 용언

문장에서 서술의 기능을 하는 단어.

형태가 변하는¹ 유일한 ‘언’이다. 체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단, 예외적으로 활용되는 ‘-이다’와 같은 서술격조사가 있긴 함.

1.1.1 동사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

1.1.2 형용사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1.2 체언

문장에서 몸체가 되는 부분.

1.2.1 명사

구체적/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의존명사에 관해서는 4쪽의 2.2절을 참조 바람.

1.2.2 대명사

사람이나 장소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단어.

¹활용

- 인칭대명사 : 저, 너, 너희, 우리, 자네, 누구

- 지시대명사 : 거기, 무엇, 그것, 이것, 저기

※아버지 : 명사임.

1.2.3 수사

순서²/수량³을 나타내는 수사.

1.3 관계언

주로 체언 뒤에 붙어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추가하는 단어.

1.3.1 조사

특수한 의미를 더해 주는 단어들.

을/를, 이/가, 은/는, 와/과, 의, 에서, 에게, 이다 등

1.4 수식언

다른 단어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들.

1.4.1 관형사

체언 앞에 놓여서 체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들. ‘어떤’

1.4.2 부사

용언을 꾸며 주는 단어들. ‘어떻게’

1.5 독립언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감탄사.

1.5.1 감탄사

놀람, 느낌, 부름, 대답 등을 나타내는 단어들.

²서수사

³양수사

하늘이 높다.

하늘	이	높-	-다
자립	의존	의존	의존
실질	형식	실질	형식

표 3.1: 형태소 분석의 예

제 2 절 형태소

형태소 :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단어

- 자립형태소/의존형태소
- 실질형태소/형식형태소

설명은 표 3.1을 참조⁴ 바람.

제 3 절 어간/어미, 어근/접사

- 어간 : 용언이 활용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 어미 : 어간 뒤에 붙어서 변하는 부분

기본형을 써보고 비교하면 어간을 찾을 수 있다.

도착하시었겠구나.
기본형 : 도착하다

- 어근 :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
- 접사 :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거나 품사를 바꾸는 주변 부분

제 4 절 단어의 형성

4.1 단일어

단일어 :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단어

4.2 복합어

복합어 : 둘 이상의 어근이나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

⁴‘참고’ 과 ‘참조’의 차이점? 이번에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사용!
살펴서 생각함, 살펴서 도움이 될 만한 재료로 삼음 / 참고로 비교하여 대조해 봄

4.2.1 합성어

합성어 :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한 단어

4.2.2 파생어

파생어 :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단어.

개-살구, 먹-이다, 먹-구름, 먹-이

복합어는 가끔 보면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구별이 잘 안될 때가 있다. 한 가지 구별 방법은, 합성어는 거의 대등한 두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이다. 잘 모르겠으면 역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자!

제 4 장

문장

문장 :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

제 1 절 문장성분

문장성분 : 문장을 만드는 데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부분. 큰 갈래/작은 갈래로 총 3/7가지로 분류됨.

1.1 주성분

문장구성의 필수 성분.

1.1.1 주어

동작 상태의 주체를 표현.

1.1.2 서술어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

1.1.3 목적어

서술어의 동작 대상을 표현.

1.1.4 보어

‘되다’, ‘아니다’ 가 필요로 하는 주어를 제외한 성분.

1.2 부속성분

주성분을 꾸며주는 성분.

1.2.1 관형어

체언을 꾸며줌.

1.2.2 부사어

체언이 아닌 것들을 꾸며줌.

그는 아주¹ 새² 사람이³ 되었다.

1.3 독립성분 - 독립어

말그대로 어떠한 다른 문장 성분과도 관계를 맺지 않는다. 독립언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 철수야, 여기 앉아.
- 청춘, 이것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 어머, 놀랐잖아.
- 예, 맞습니다.
- 날씨가 흐리다. 그러나 비는 오지 않았다.

제 2 절 문장성분에 관한 몇가지 첨언

2.1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성분의 개수.

- 한 자리 서술어 : 아름답다, 흐르다, 내리다, 돌아오다, 웃다 등
- 두 자리 서술어 : 아니다, 던지다, 먹다, 보다, 되다 등
- 세 자리 서술어 : 주다, 삼다 등

2.2 문장성분을 분석하기 위한 요령

주의 : 요령은 요령일 뿐, 정석은 아님.

- 헷갈릴 경우 일단 서술어의 개수를 세어 보아라. 서술어로 쓰이는 품사들에는 동사,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조사 ‘이다’ 뿐이다.
- [추가바람](#)

¹부사어

²관형어

³보어

제 3 절 홀문장

주어-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있는 문장. 단순.

제 4 절 겹문장

주어-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상 있는 문장. 이는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으로 나뉜다.

4.1 이어진문장

이어진문장 : 두 문장이 서로 나란히 이어져 만들어진 겹문장.

4.1.1 대등

독립, 나열

-고, -지만, -으나, -으며

4.1.2 종속

배경, 조건, 원인, 의도, 양보...

-는데, -으면, -아서,-으려고, -을지라도

4.2 안은문장과 안긴문장

안은문장 :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을 안아 만들어진 겹문장. 여기에서 ‘안긴’ 문장을 안긴문장이라 한다.

- 명사절 : -음, -기
- 관형절 : -은, -는, -던, -을
- 부사절 : -이], -게, -도록
- 서술절 : 이중주어문
- 인용절 : -라고, -하고, -고

제 5 절 비문 분석

비문(非文) :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비문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하다. 11시 59분에 제출된 숙제에서 많이 볼 수 있다는...

- 주술 호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 구조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 높임법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⁴
- 인용법에서 잘못된 조사의 사용.
- 문장 접속 시 조응이 부적절한 경우.
- 문장 접속 시 논리적 호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 서술어의 어색한 사용(외국어식 표현).⁵
- 피동문의 과용. -지다
- 어순의 배열이 어색한 경우.
- 동어의 반복 사용. 와, 과
- 중의적 문장(의미의 모호성).

⁴‘있다’의 직접높임말로는 ‘계시다’, 간접높임말로는 ‘있으시다’가 있다.

⁵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세대는 어색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언어의 역사성이 말해주듯 ‘약속’이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제 5 장

부록

제 1 절 의존명사와 띄어쓰기

문장에서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

아는 대로¹
너대로²

제 2 절 사이시옷 현상

사이시옷 현상은 발음에서의 현상이 아니라 표기상의 문제이므로 부록에 분류하였다. 설명은 표 5.1와 같다.
한자어 + 한자어의 예외 : 곳간, 찻간, 셋방, 숫자, 헷간, 횟수

제 3 절 비문들

- 맑은 물과 흰구름이 감도는 봉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비경으로 들어갔다.
- 나는 휴볼트의 언어는 유한한 수단을 무한하게 부려 쓰는 것이라는 언어관에 공감하고 있다.

¹용언 뒤에 붙어있으니 의존명사. 의존명사는 띄어씀.

²체언 뒤에 붙어있으니 조사. 조사는 붙여씀.

사이시옷 현상 여부		
순우리말 + 순우리말	O	나무+가지, 내+가, 바다+가
순우리말 + 한자어	O	터+세, 장미+빛, 등교+길, 최대+값
한자어 + 한자어	X	예외

표 5.1: 사이시옷 현상의 예시

- 영수는 열심히 공부를 학교에서 한다.
- 그의 나에 대한 평가는 참으로 어떠한지 궁금하다.
- 나는 별써 어른이 아니면서 앞당겨서 어른의 세계에 물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 미리 자료를 예비한 분은 별도의 자료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 담징의 작품은 관념의 표백에 그쳤을지도 알 수 없다.
- 그는, 하겠다고 말한 것은 결코 해내는 사람이다.
- 이런 무료한 시간에 그런 회상의 유혹을 물리치기란 좀처럼 어려운 일이었다.
- 이들은 비단 조선 시대의 화풍에 반기를 들고, 풍속화를 대담하게 그렸다.
- 우리가 한글과 세계의 여러 문자들을 비교해 볼 때, 매우 조직적이며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라고 하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 영수는 은희에게 가방을 주었는데, 그 보답으로 영수에게 책을 선물하였다.
- 우리가 패배한 이유는 상대를 너무 업신여겼다.
- 나는 너보다 낚시를 더 좋아한다.
- 사람은 모름지기 분별을 가질 따름이다.
- 그다지 인심이 후하던 그도 세대의 변화에 따라 마음이 달라졌다.
- 선생님께 돌 지난 손자가 계시지?
- 할아버지께서는 이빨이 좋으시다.
- 철수야, 너 아버지께서 오시라고 한다.
- 할아버지, 작은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 삼촌은 나만 보면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고 묻곤 하셨다.
- 순희가 자기집 바둑이가 새끼를 여러 마리 낳았다라고 나에게 말했다.
- 기재 사항의 정정 또는 금융 기관의 수납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재일 동포들은, 일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하고 있으면서도 차별과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복종하기도 한다.
- 그가 계임에 몰두하는 것은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보다는 현재의 고로움을 잠시나마 잊어 보려는 행동에 불과하다.

- 누나는 모범생이며, 형은 냉면을 좋아한다.
- 나는 축구를 좋아하고, 누나의 취미는 탁구이다.
- 복남이는 낚시질을 별로 즐기지 않았고, 고기가 입질도 할 짐새가 전혀 안 보였다.
- 오는 토요일 설악산으로 여행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너의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에게는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 그 사람은 참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러한 성격 때문에 당해지는 손해가 여간 크지 않았다.
- 한 나라의 영화 정책은 당연히 자기 나라 영화의 보호와 진흥을 목적으로 그 방향에 따라 정책을 수행한다.
-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일제의 식민지 교육이 식민지 지배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으며, 간교한 민족 분열의 수단인 동시에 정치 선전이었다.
-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의 불타는 창작 의욕이 그를 죽음에서 구해 내었으며, 인류를 위해 훌륭히 예술을 창작할 것을 결심했던 것이다.
- 내가 사랑하는 영희의 언니 영자
-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이 매우 많다.
- 그 소설가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린이와 철학자를 작품의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 그것이 요즈음 학생들에게 많이 읽히지는 책이다.
- 우리 나라는 그동안 많은 다목적 댐들이 만들어지고, 한강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요 홍수 통제 시스템들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
- 사람들이 많은 도시를 다녀보면 재미있는 일이 많을 것이다.
- 싱싱한 물고기는 물 속에서 해엄칠 때만 그 싱싱한 물고기의 은빛 지느러미가 빛난다.
- 청소년 담배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학교에서는 담배 금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텔레비전의 심야 오락 프로그램은 간혹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성적 자극을 유도하는 장면이 있다.
- 돌이켜 회고해 보면 고난의 가시밭길을 우리는 걸어 왔습니다.
- 인심이 야박해져서 조그만 일에도 재빨리 이해 타산을 계산하는 요즘 세상이 서글프다.
-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제각기 다르게 살고 있다.
- 이 때 한 용감한 시민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는 범인을 뒤쫓기 시작했다.
- 내일 아침이면 또 마음이 변해지겠구나.

- 나도 그렇게 생각되어지더라.
- 짜늘하게 식어지면서 굳어가던 그 시체는 내게 큰 충격이었다.
- 그러나 이상의 문제들이 지금껏 민주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과 불만이 싹텄다.
- 풍년 농사를 위한 저수지가 관리 소홀과 무관심으로 올 농사를 망쳐 버렸습니다.
-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겨울에 체력 훈련을 열심히 하여야 지난해와 같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들의 의견은 앞으로 농촌 보건 문제에 관심을 갖자는 데 뜻을 모았다.
- 회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 컴퓨터를 구매하시면 저희 회사가 직접 교육시켜 드립니다.
- 이 같은 국내 영어 캠프는 무분별한 학생들의 해외 연수를 줄일 것입니다.
- 손에 들려져 있어야 할 물건이 보이지 않았다.
- 열려져 있는 창문으로 모기가 들어왔네.

차 례

제 1 장 언어	2
제 1 절 언어의 특성	2
제 2 장 음운	3
제 1 절 음운의 종류 및 특징	3
1.1 분절음운	3
1.2 비분절음운	5
1.3 국어의 음운론적 특징	5
제 2 절 음운의 변동	5
2.1 교체	5
2.2 탈락	7
2.3 첨가	7
2.4 축약	7
제 3 장 단어	9
제 1 절 품사	9
1.1 용언	9
1.2 체언	9
1.3 관계언	10
1.4 수식언	10
1.5 독립언	10
제 2 절 형태소	11
제 3 절 어간/어미, 어근/접사	11
제 4 절 단어의 형성	11
4.1 단일어	11
4.2 복합어	11
제 4 장 문장	13
제 1 절 문장성분	13
1.1 주성분	13

1.2	부속성분	13
1.3	독립성분 - 독립어	14
제 2 절	문장성분에 관한 몇가지 첨언	14
2.1	서술어의 자릿수	14
2.2	문장성분을 분석하기 위한 요령	14
제 3 절	홀문장	15
제 4 절	겹문장	15
4.1	이어진문장	15
4.2	안은문장과 안긴문장	15
제 5 절	비문 분석	15
제 5 장	부록	17
제 1 절	의존명사와 띄어쓰기	17
제 2 절	사이시옷 현상	17
제 3 절	비문들	17
이 문서의 차례 및 표 목록	20

표 차례

2.1	단모음의 발음에 따른 분류	4
2.2	자음의 발음에 따른 분류	4
2.3	끌소리 규칙의 예시	5
2.4	구개음화의 예시	6
2.5	자음동화의 예시	6
2.6	‘ㅣ’ 모음 역행동화의 예시	7
2.7	모음의 탈락의 예시	7
2.8	‘ㄴ’ 첨가의 예시	7
2.9	거센소리되기의 예시	8
3.1	형태소 분석의 예	11
5.1	사이시옷 현상의 예시	17